



|| Session II ||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무개발 및 고용정책 방향

미취업 여성청년층 실태와 고용정책 과제

- 발표자 :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토론자 : 김호원 (한국고용정보원)
민현정 (이화여대)

미취업 여성청년층 실태와 고용정책 과제¹⁾

신선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소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1. 연구목적

청년층 취업난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차원의 정책대응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취업난 혹은 실업의 원인과 양상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급증하였고, 그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보다 밀착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혁 정책, 진로교육 및 취업준비 지원 정책, 능력개발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직접적인 일자리(취업)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전해 왔다. 2002년에 5,552억원이었던(정인수·남궁은상, 2002, p.54) 중앙부처 청년실업대책의 예산은 2012년에 1조 7,903억 5,5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하현선, 2013, p.21)²⁾.

상당한 규모의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난은 개선되었다기 보다

1) 이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기본과제 연구보고서인 신선미 외(2013)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효과와 취업지원방안”의 일부분을 학술논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2) 두 연구의 분석대상 정책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비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청년고용정책의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더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년층 취업난의 초기에는 구직의사는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었으나,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층 인구의 증가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청년 니트(NEET)족, 즉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 청년층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의 문제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니트족이나 캥거루족³⁾과 같이 교육훈련을 받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층을 자립시키는 일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이 논문은 청년층 취업난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미취업 청년층의 주요 활동상태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미취업 청년층은 1) 구직활동 중으로 일자리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취업 가능한 실업자, 2) 즉각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으나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준비 중인 자, 3) 취업의사도 없고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는 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집단에 따라 미취업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특성이 남성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청년고용정책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미취업 청년층 인구를 1) 구직활동 중으로 일자리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취업 가능한 실업자, 2) 즉각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으나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준비 중인 자, 3) 취업의사도 없고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는 자로

3)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가 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하거나 취업할 의사가 없이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구분할 경우, 각각의 인구규모는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위의 세 개 미취업 청년층 집단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⁴⁾의 인적자본은 취업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그러한 차이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연구방법

위의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03-2012), 지역고용조사 2012년 2분기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12)이다. 그 밖에 통계청의 KOSIS의 경제활동인구조사 DB 자료도 활용하였다.

3. 주요 연구결과

가.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청년층(15-29세) 전체 인구는 2012년 현재 951만 여명이며 그 중 여성은 481만 여명(50.5%)이다.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202만 여명, 실업자가 12만 5천명, 비경제활동인구가 266만 여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44.6%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고 취업자 수도 더 많으며 실업자 수는 더 적다. 2004년까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높았는데 2005년 이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아졌다. 참고로 지난 10여

4) 세 번째 집단을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년 간 청년층 취업자의 인구규모는 남녀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남성은 2000년에 249만 2천명에서 2012년에 182만명으로 26.9% 감소했고, 여성은 238만 7천명에서 202만 3천명으로 15.2% 감소했다.

〈표 1〉 15-29세 남녀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1,000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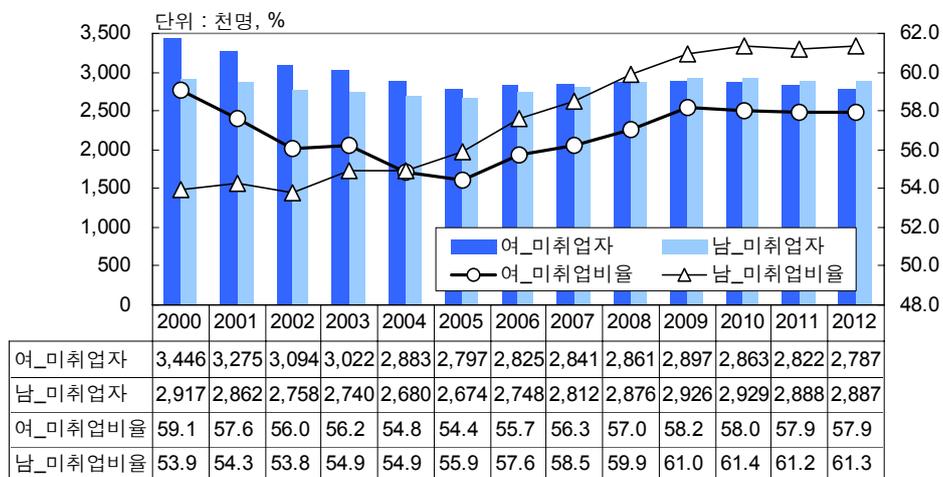
연도	남자					여자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경제활동참가율
2000	2,492	242	2,675	5,409	50.5	2,387	160	3,287	5,834	43.7
2001	2,408	229	2,632	5,269	50.0	2,407	159	3,117	5,683	45.2
2002	2,370	206	2,551	5,127	50.2	2,429	135	2,960	5,524	46.4
2003	2,252	220	2,520	4,992	49.5	2,354	163	2,859	5,376	46.8
2004	2,203	224	2,456	4,883	49.7	2,375	167	2,715	5,257	48.4
2005	2,109	204	2,469	4,782	48.4	2,341	162	2,635	5,138	48.7
2006	2,023	192	2,556	4,771	46.4	2,247	152	2,673	5,072	47.3
2007	1,993	187	2,625	4,805	45.4	2,209	117	2,724	5,050	46.1
2008	1,926	171	2,705	4,802	43.7	2,158	126	2,736	5,020	45.5
2009	1,873	191	2,735	4,799	43.0	2,084	133	2,765	4,982	44.5
2010	1,845	174	2,755	4,774	42.3	2,069	134	2,729	4,932	44.7
2011	1,831	162	2,726	4,719	42.2	2,048	123	2,699	4,870	44.6
2012	1,820	152	2,735	4,707	41.9	2,023	125	2,663	4,811	44.6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DB.

2000년 이후 미취업자 비중의 변화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여성의 경우 2000년(58.2%)부터 2005년(54.4%)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서서 2009년에 61.0%에 도달했고 이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에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4%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이후로 증가율이 높아져 2010년에 61.4%에 도달한 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미취업 청년층 인구는 여성

(278만 여명)이 남성(288만 여명)보다 적고, 전체 청년층 인구에서 미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여성(57.9%)이 남성(61.3%)보다 낮다(그림 1).

참고로 [그림 2]에서 미취업자는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고 있는 15-29세 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이 미취업자의 60-7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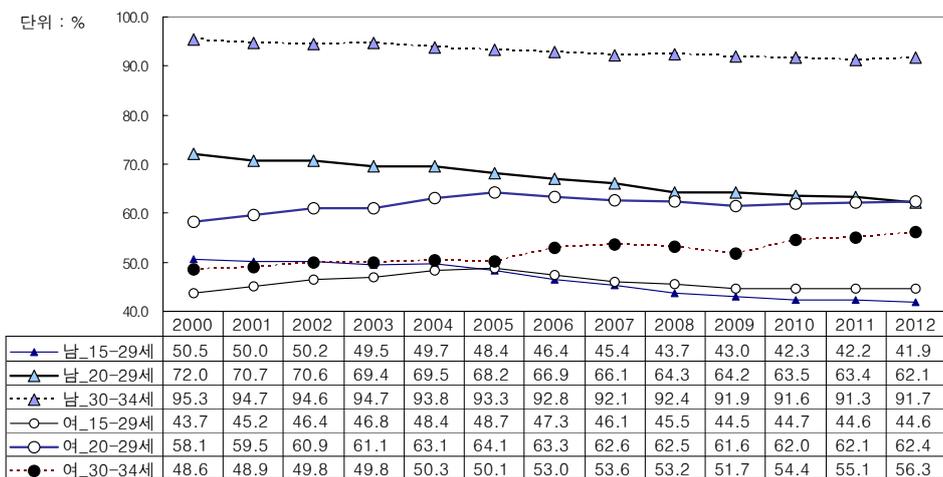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DB.

[그림 1] 남녀 청년층 취업자 및 미취업자 수 추이(2000-2012)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대에 따라 성별 격차의 특징이 달라진다. 15-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고 2004년 이전에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았으나 2005년 이후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20-29세 연령층의 경우에는 2000년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무려 14%p 가량 더 높았으나 2012년에는 남성(62.1%)과 여성(62.4%)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참고로 30-3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에 여성(48.6%)이 남성(95.3%)보다 46.7%p 낮고 2012년에는 그 격차가 35.4%p로 감소하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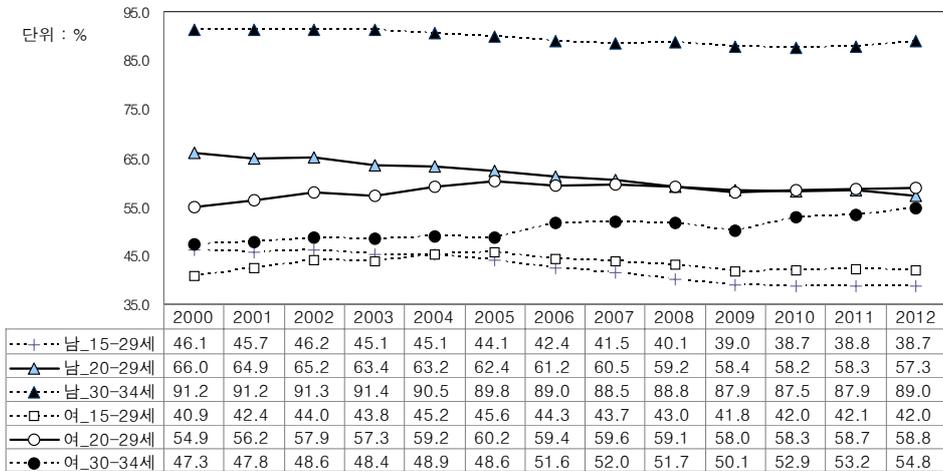
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해당 연령 인구 중 “취업자 +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비하여, 고용율은 해당 연령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100-고용율”은 미취업자 비율이 되는데 청년층 연령대별로 고용율의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2012년에 남성(38.7%)보다 여성(42.0%) 청년층의 고용률이 더 높다. 2003년까지만 해도 남성 청년층의 고용률이 더 높았으나 2004년부터 역전되었다. 20대 청년층으로 한정하여 성별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2010년부터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이 더 높다.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2000년(66.0%)에서 2012년(57.3%) 사이에 8.7%p 감소했으나 여성의 고용률은 54.9%에서 58.8%로 3.9%p 증가했다. 30-34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유사하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다. 2012년의 경우 양성 간의 격차는 34.2%p이다.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DB.

[그림 2] 남녀 청년층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0-2012)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DB.

[그림 3] 남녀 청년층 연령대별 고용율 추이(2000-2012)

나.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구성

이 연구는 미취업 여성청년층을 다음과 같이 세 집단으로 구분해보았다.

① 실업자	②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중인 자	③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를 안하는 자
구직활동 중으로 일자리가 있다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주된 활동이 취업준비 중인 자	구직활동도 취업준비도 하지 않는 자, 혹은 취업준비를 해도 주된 활동이 취업준비가 아닌 자
27만 7천명(4.9%)	42만 5천명(7.5%)	497만 2천명(87.6%)

[그림 4] 미취업 청년층의 구분

첫 번째 집단은 청년 실업자로 일할 곳이 필요한 집단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알선해 준다면 더욱 더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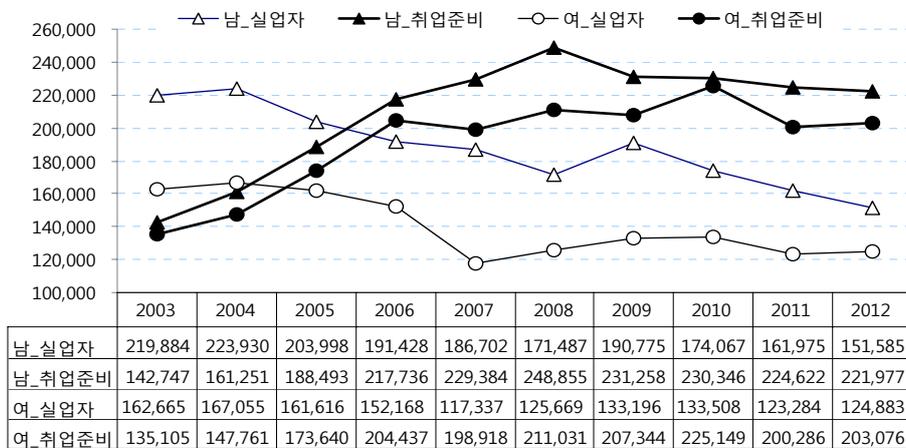
두 번째 집단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일부분으로 당장 취업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의사가 있고 주로 취업준비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 혹은 알선보다 효과적인 취업준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집단에 속하지 않는 집단, 즉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고 취업준비도 하지 않는 청년층은 상당히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집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위 집단은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일부 학생들은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취업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준비보다 학업을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 밖에 육아·가사, 진학준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쉬었음 등의 이유로 취업의사가 없는 청년들이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이나 취업의사가 없는 청년층은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낮고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기도 어려운 집단이다.

15-29세 미취업 청년층 인구는 총 567만 4천 명 정도인데 이들을 위와 같이 세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첫 번째 집단(실업자)의 규모는 27만 7천명(4.9%), 두 번째 집단(취업준비자)은 42만 5천명(7.5%), 세 번째 집단(구직활동도 취업준비도 안 하는 집단)은 497만 2천명(87.6%)이다. 만약 정규교육기관에 통학 중인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미취업 청년층 인구는 173만 2천여 명이며, 첫 번째(실업자) 집단의 비중은 16.0%, 두 번째 집단(취업준비자) 비중은 24.5%, 마지막 집단(구직활동도 취업준비도 안 하는 집단)의 비중은 59.5%이다.

최근 10년 간 미취업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주목할 만한 것은 남녀 모두 실업자는 감소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준비만 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림 5]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실업자 수는 2003년에 16만 2천여 명에서 2012년에 12만 4천여 명으로 감소한데 비해, 같은 기간에 취업준비만 하는 여성 청년층은 13만 5천여 명에서 20만 3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주1 : 미취업 청년층 = 실업자(구직기간 1주기준) + 비경제활동인구

주2 : 취업준비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준비”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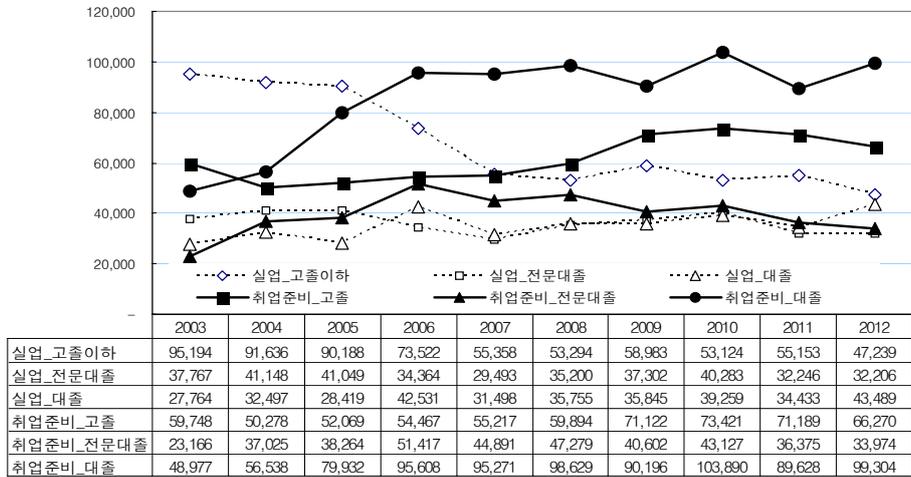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원자료 재분석

[그림 5] 청년층 실업자 및 취업준비자 인구규모 추이 성별비교

구직활동 없이 취업준비 중인 청년층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여성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위의 [그림 6]을 아래 [그림 7]과 같이 최종학력별로 분해해 본 결과, 대졸 미취업 여성청년층이 9-10만명 정도로 가장 많고, 최근 들어 고졸자 규모도 약간 증가하여 약 7만명 정도되고, 전문대 졸업자는 약 4만명 정도로 가장 적었다.

16개 시·도 중 여성의 취업준비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광주(6.6%)이며, 경남(4.9%), 대전·전북(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실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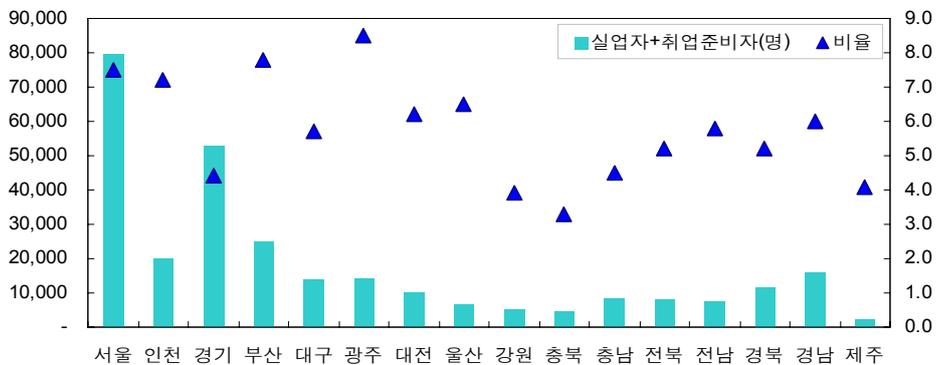
은 인천(4.2%), 서울(3.9%), 경북(3.5%)지역이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46.0%)이며, 제주(44.9%), 인천(43.9)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33.0%)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에서 여성 취업률이 높고, 평균적으로 여성 취업률이 낮은 지역에 취업준비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 : 여성으로 한정하고 대학원 졸업자를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원자료 재분석

[그림 6] 교육수준별 여성청년층 실업자 및 취업준비자 인구규모 추이



[그림 7] 미취업 여성청년층인구 중 실업자와 취업준비자 규모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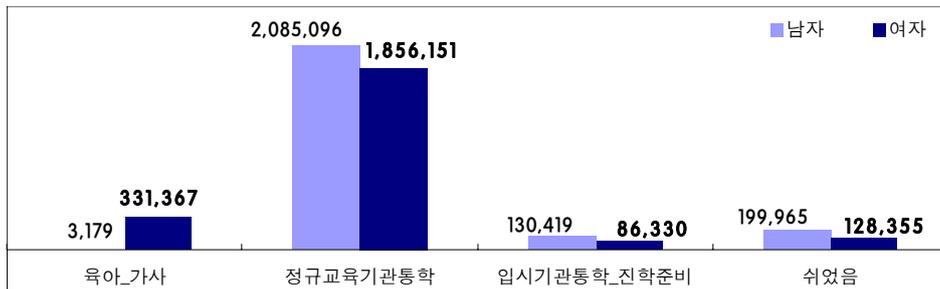
〈표 2〉 청년층 지역별 고용분포 비교

단위 : 명(row%)

지역 구분	남자				여자			
	취업자	실업자 (구직준비)	비경활 (취업준비)	비경활 (비취업준비)	취업자	실업자 (구직준비)	비경활 (취업준비)	비경활 (비취업준비)
서울	379,716 (38.6)	34,477 (3.5)	41,445 (4.2)	527,403 (53.7)	486,913 (46.0)	41,552 (3.9)	38,019 (3.6)	492,273 (46.5)
인천	100,231 (37.7)	13,090 (4.9)	11,894 (4.5)	140,805 (52.9)	124,065 (43.9)	11,798 (4.2)	8,391 (3.0)	138,468 (49.0)
경기	457,569 (40.7)	33,727 (3.0)	31,648 (2.8)	601,175 (53.5)	522,289 (43.7)	20,317 (1.7)	32,644 (2.7)	619,955 (51.9)
부산	114,223 (35.5)	11,203 (3.5)	15,206 (4.7)	181,227 (56.3)	135,282 (42.0)	11,094 (3.4)	14,045 (4.4)	161,964 (50.2)
대구	73,357 (30.9)	8,769 (3.7)	11,340 (4.8)	143,744 (60.6)	96,017 (40.1)	4,418 (1.8)	9,279 (3.9)	129,842 (54.2)
광주	50,734 (32.9)	4,061 (2.6)	9,442 (6.1)	90,165 (58.4)	59,438 (36.3)	3,137 (1.9)	10,879 (6.6)	90,312 (55.1)
대전	57,872 (35.6)	3,500 (2.2)	8,210 (5.1)	92,985 (57.2)	62,388 (38.2)	2,622 (1.6)	7,470 (4.6)	90,878 (55.6)
울산	40,216 (37.7)	2,680 (2.5)	2,434 (2.3)	61,463 (57.6)	35,065 (34.8)	2,655 (2.6)	3,939 (3.9)	59,100 (58.7)
강원	42,922 (33.3)	4,252 (3.3)	5,498 (4.3)	76,349 (59.2)	47,773 (38.4)	2,250 (1.8)	2,617 (2.1)	71,869 (57.7)
충북	53,891 (36.7)	3,325 (2.3)	5,951 (4.1)	83,737 (57.0)	56,512 (39.9)	1,026 (0.7)	3,712 (2.6)	80,351 (56.7)
충남	91,694 (46.2)	3,612 (1.8)	4,639 (2.3)	98,663 (49.7)	75,408 (40.5)	4,896 (2.6)	3,490 (1.9)	102,233 (55.0)
전북	54,690 (33.2)	4,179 (2.5)	10,210 (6.2)	95,532 (58.0)	54,994 (36.0)	930 (0.6)	7,074 (4.6)	89,631 (58.7)
전남	45,216 (34.6)	2,804 (2.1)	4,577 (3.5)	78,010 (59.7)	45,146 (34.6)	4,029 (3.1)	3,558 (2.7)	77,697 (59.6)
경북	83,233 (35.9)	7,576 (3.3)	9,691 (4.2)	131,250 (56.6)	92,466 (40.9)	7,806 (3.5)	3,814 (1.7)	122,015 (54.0)
경남	106,571 (36.5)	9,164 (3.1)	10,134 (3.5)	165,976 (56.9)	87,880 (33.0)	2,980 (1.1)	13,026 (4.9)	162,357 (61.0)
제주	18,987 (38.4)	1,190 (2.4)	2,530 (5.1)	26,697 (54.0)	22,235 (44.9)	663 (1.3)	1,409 (2.8)	25,247 (50.9)

주 : 분석대상 범위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와 실업/취업준비자(실업자, 비경활자 중 취업준비자)로 한정하였음.
 자료 :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2.

미취업 청년층이나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을 준비하지도 않는 자들의 주요 활동으로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밖에 입시기관 통학, 진학준비, 육아, 가사, 쉬었음 등이 있다.



[그림 8]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주요 활동(2012)

<표 3> 비경제활동 유형별 남녀 청년층 인구분포 추이

조사연도	육아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기관 통학 진학준비		쉬었음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3	10,023	765,417	1,931,137	1,747,901	120,594	76,785	145,691	84,761
2004	13,228	682,423	1,855,358	1,662,697	114,792	75,445	165,700	98,289
2005	4,195	568,480	1,846,211	1,647,607	133,669	77,991	165,938	118,366
2006	6,082	515,442	1,948,669	1,723,610	114,836	80,889	156,576	109,208
2007	5,195	497,067	2,017,845	1,811,619	124,703	78,561	148,418	103,292
2008	2,700	474,928	2,077,348	1,839,947	125,841	73,899	155,689	98,543
2009	2,834	465,256	2,088,921	1,854,913	138,305	78,194	179,239	124,365
2010	3,044	430,522	2,090,043	1,836,877	161,180	90,305	170,973	112,282
2011	1,732	397,117	2,075,277	1,839,360	148,930	98,940	183,200	135,015
2012	3,179	331,367	2,085,096	1,856,151	130,419	86,330	199,965	128,355

주 : 분석대상 범위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층(15-29세)으로 한정하였음.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원자료 재분석

육아나 가사를 돌보는 남성 청년은 극소수이고 여성은 39만 7천여 7명이다. 이 인구는 2003년에 76만 5천여 명이었으나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여성 청년층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여성 청년층은 소위 “니트족”인데 2003년에 8만 4천여 명에서 2011년에 12만 8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다. 청년층 실업자/취업준비자의 인적자본

앞에서 미취업 청년층 인구를 1) 실업자(27만 7천 명), 2)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중인 자(42만 5천 명), 3)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자(497만 2천 명),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총 70만여 명)의 인적자본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1) 교육경험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해 실업자와 취업준비자의 교육수준을 분석한 결과, 고졸 이하가 약 30만 4천명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고, 대졸자(4-5년제)가 37.9%, 전문대 졸업자가 17.6%이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고졸 이하의 비중(51.0%)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4년제 대졸 이상의 비중(45.2%)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남성보다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졸 이상 실업자 및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전공분야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10만 1천여 명으로 50.2%를 차지하고, 예체능계열이 2만 8천여 명으로 14.1%, 자연계열이 2만 5천여 명으로 12.7%를 차지한다. 남성의 경우 인문사회계열(37.5%) 보다 공학계열(42.5%)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실업/취업준비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별 비교

단위 : 명, %

교육수준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고졸이하	204,050	51.3	132,520	39.6	336,570	45.9
전문대졸	60,912	15.3	70,388	21.0	131,300	17.9
대 졸	130,770	32.8	127,034	38.0	257,804	35.2
석박사	2,369	0.6	4,546	1.4	6,915	0.9
합 계	398,101	100	334,488	100	732,589	100

주 : 분석대상 범위는 15-29세 청년층 미취업자(실업자, 비경활자 중 취업준비자)로 한정하였음.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1.

〈표 5〉 전문대졸 이상 실업/취업준비자의 전공분야에 따른 성별 비교

단위 : 명, %

전공계열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인문사회	72,797	37.5	101,333	50.2	174,130	44.0
예체능	11,252	5.8	28,407	14.1	39,659	10.0
사범	6,245	3.2	16,530	8.2	22,775	5.8
자연	17,469	9.0	25,619	12.7	43,088	10.9
공학	82,377	42.5	19,403	9.6	101,780	25.7
의약	3,911	2.0	10,676	5.3	14,587	3.7
합계	194,051	100	201,968	100	396,019	100

주 : 분석대상 범위는 15-29세 청년층 미취업자(실업자, 비경활자 중 취업준비자)로 한정하였음.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1.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 정도를 분석한 결과, 취업여부와 관련없이 청년층 인구의 70% 이상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78.6%)이 여성(71.0%)보다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적다. 남녀 모두 취업자에 비하면 실업자-취업준비자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많다. 여성의 경우 취업자의 27.2%만이 직업교육훈련의 경험이 있는데 비해 실업자 및 취업준비자는 39.8%가 직업

교육훈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 12회(매월) 실시하며 청년층부가조사는 그 중 5월에 1회 실시되므로 <표 4>와 <표 6> 간에 취업자 수, 실업자 및 취업준비자 수에 차이가 있다.

<표 6> 실업/취업준비자의 직업교육훈련 경험 성별비교

단위 : 명(%)

직업훈련 경험	남자			여자		
	취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전체	취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전체
재학/휴학 중 받았음	164,782 (9.0)	54,600 (14.2)	219,382 (9.9)	284,483 (13.8)	43,981 (13.2)	328,464 (13.7)
졸업/중퇴 후 받았음	136,004 (7.4)	70,367 (18.3)	206,371 (9.3)	203,705 (9.8)	61,461 (18.4)	265,166 (11.0)
재학/휴학 중 졸업/중퇴 후 모두 받았음	38,040 (2.1)	11,716 (3.1)	49,756 (2.2)	74,758 (3.6)	27,255 (8.2)	102,013 (4.2)
없음	1,502,011 (81.6)	246,937 (64.4)	1,748,948 (78.6)	1,505,643 (72.8)	200,685 (60.2)	1,706,328 (71.0)
합계	1,840,837 (100.0)	383,620 (100.0)	2,224,457 (100.0)	2,068,589 (100.0)	333,382 (100.0)	2,401,971 (100.0)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2.

2) 취업준비 경험

미취업 기간과 미취업 기간 중 주요 활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여성의 미취업기간은 6개월 미만(57.3%)이 가장 높았고, 2년 미만인 비율이 전체 여성의 약 86.0%에 달한다. 미취업기간 중 실업자-취업준비자들은 취업관련 시험준비(50.5%)와 구직활동(28.6%)을 주로 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에 주로 시간을 보낸 자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자도 9.2%나 된다. 남성은 여성보다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고 여성

은 남성에 비해 취업관련 시험준비를 더 많이 한다.

〈표 7〉 청년층 실업/취업준비자 최근 미취업기간 및 주요활동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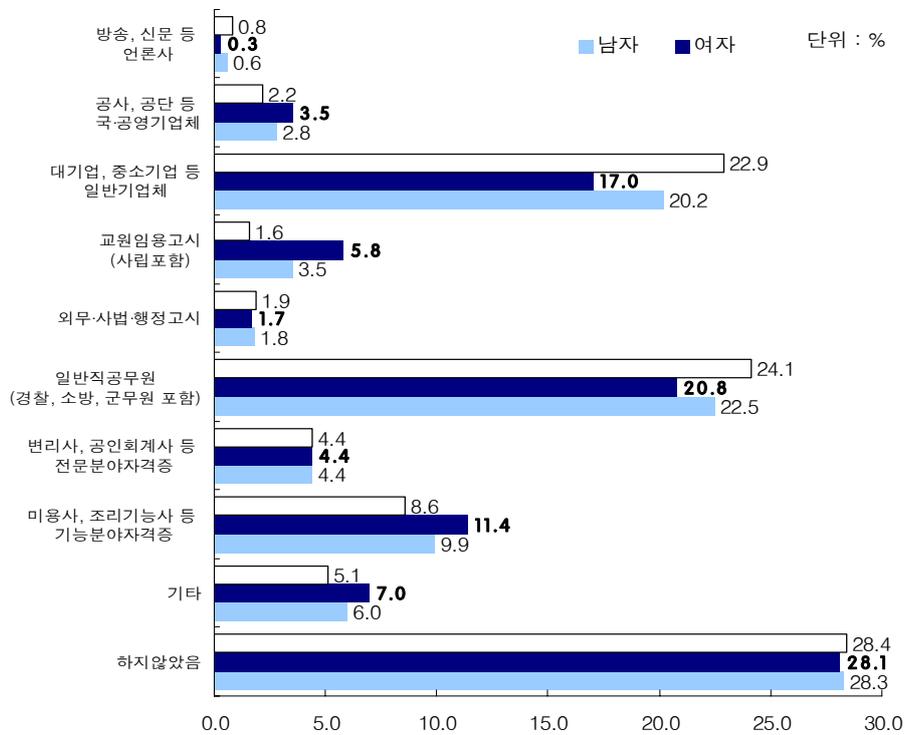
미취업기간 및 활동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미취업 기간	6개월 미만	158,479	54.0	164,730	57.3	323,209	55.6
	6개월~1년 미만	43,630	14.9	38,348	13.4	81,978	14.1
	1~2년 미만	36,131	12.3	43,812	15.3	79,943	13.8
	2~3년 미만	28,701	9.8	19,229	6.7	47,930	8.3
	3년 이상	26,604	9.1	21,130	7.4	47,734	8.2
	합 계	293,545	100.0	287,249	100.0	580,794	100.0
미취업 기간 중 활동	취업관련 시험준비 ^{주1)}	135,506	46.2	157,733	54.9	293,239	50.5
	구직활동을 함	94,998	32.4	71,026	24.7	166,024	28.6
	그냥 시간을 보냄	32,715	11.1	20,666	7.2	53,381	9.2
	직업교육(훈련)을 받음	19,079	6.5	16,198	5.6	35,277	6.1
	육아·가사	1,810	0.6	6,929	2.4	8,739	1.5
	여가시간을 보냄	2,324	0.8	5,864	2.0	8,188	1.4
	기 타	7,114	2.4	8,833	3.1	15,947	2.7
	합 계	293,546	100.0	287,249	100.0	580,795	100.0

주1 : 취업관련 시험준비 = 취업관련 시험준비를 위해 학원 또는 도서관을 다님

주2 : 분석대상 범위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한정하였음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2.

청년층 실업자와 취업준비자 중에서 지난 1주간 취업관련 시험준비 경험 여부와 시험분야를 분석한 결과, 71.7%가 시험준비를 했고 남녀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그림 9). 시험준비분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기업체 시험을 여성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여성은 교원임용고사와 기능분야 자격증 준비 등을 남성보다 더 많이 한다.



주 : 분석대상 범위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한정하였음.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2.

[그림 9] 청년층 실업자-취업준비자의 취업관련 시험준비 실태

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 직장체험(아르바이트 등 취업 포함)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여성(60.3%)이 남성(53.8%)에 비해 직장체험 경험자 비율이 높았다. 주된 직장체험 형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제 취업이 가장 많았는데, 남성의 33.7%, 여성의 42.5%가 시간제 일자리를 주로 경험하였다. 전일제 취업을 주로 한 자도 남성의 15.0%, 여성의 9.2%를 차지한다. 학교에서 운영한 현장실습에 참여한 비율도 남성(1.8%)보다 여성(4.2%)이 높다. 그 밖에 인턴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표 8〉 청년층 실업자-취업준비자의 주된 직장체험 경험 성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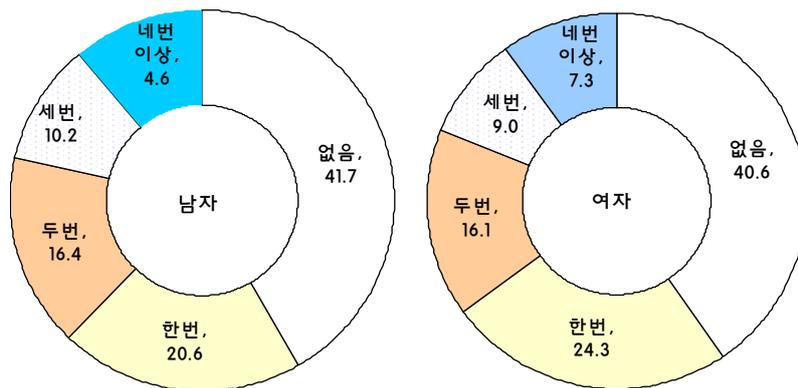
단위 : 명, %

직장체험경험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시간제취업	129,287	33.7	141,663	42.5	270,950	37.8
전일제취업	57,722	15.0	30,654	9.2	88,376	12.3
학교현장실습	6,790	1.8	14,133	4.2	20,923	2.9
인턴	6,604	1.7	7,834	2.3	14,438	2.0
기타	5,039	1.3	2,409	0.7	7,448	1.0
정부지원 프로그램참여	1,063	0.3	4,418	1.3	5,481	0.8
하지 않았음	177,116	46.2	132,271	39.7	309,387	43.2
합계	383,621	100.0	333,382	100.0	717,003	100.0

주 : 분석대상 범위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한정하였음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2.

청년층 실업자 및 취업준비자의 약 40%는 학교를 졸업/ 중퇴한 이후에 일자리를 가졌던 경험이 없다. 나머지는 한 번 이상 일자리 경험이 있는데 여성(59.4%)과 남성(58.3%)의 일자리 경험자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

단위 : %



주 : 분석대상 범위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한정하였음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2.

[그림 10] 청년층 실업/취업준비자의 일자리 경험횟수 비교

3) 희망 직업/산업/소득수준

여성 청년층 실업자와 취업준비자는 사무종사자,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서비스·판매직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는 여성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 분포와 유사하다. 즉 여성 청년층 취업자가 남성보다 사무종사자,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다.

여성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의 직업분포와 실업자 — 취업준비자의 희망직업 분포가 남성에 비해 유사하다. 남성의 경우 취업자의 23.0%만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실업자와 취업준비자의 32.3%가 이 직업에 취업의 희망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남성 청년층 취업자의 16.5%만이 사무종사자이나 실업자 — 취업준비자의 24.5%가 사무직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희망직업과 일자리 기회 간의 불일치는 여성보다 남성 실업자와 취업준비자 집단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9〉 실업자-취업준비자의 희망직업과 취업자 직업 분포 비교

단위 : 명(%)

희망직업 유형	실업자-취업준비자의 희망직업별 분포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6,732 (32.3)	45,869 (31.3)	102,601 (31.8)	406,721 (23.0)	709,279 (35.4)	1,116,000 (29.6)
사무종사자	43,066 (24.5)	56,155 (38.3)	99,221 (30.8)	292,993 (16.5)	638,051 (31.8)	931,044 (24.7)
서비스·판매종사자	36,420 (20.7)	35,878 (24.5)	72,298 (22.4)	466,616 (26.3)	510,415 (25.5)	977,031 (25.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24 (0.2)	-	424 (0.1)	20,285 (1.1)	4,500 (0.2)	24,785 (0.7)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단순 노무 종사자	39,215 (22.3)	8,526 (5.8)	47,741 (14.8)	584,506 (33.0)	141,624 (7.1)	726,130 (19.2)
합계	175,857 (100)	146,428 (100)	322,285 (100)	1,771,121 (100)	2,003,869 (100)	3,774,990 (100)

주 : 분석대상 범위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한정하였음
 자료 :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2년 3분기자료.

청년층 실업자 및 취업준비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과,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두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간에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은 “환경·오락·문화, 개인서비스업·기타산업”이다. 실업자 및 취업준비자의 22.1%가 이 산업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반면, 청년층 취업자의 8.2%만이 실제로 이 산업에 취업해 있다. 양자 간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 여성 실업자 및 취업준비자는 25.9%나 이 산업에 취업을 희망하나 남성 실업자 및 취업준비자는 그보다 적은 18.8%만이 이 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 “전기·가스업, 운수업, 방송·정보서비스업”에서도 위와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 즉 남성 실업자와 취업준비자의 16.1%가 이 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남성 청년층 취업자 중에서 이 산업에 취업한 자는 9.4%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성 청년층은 이 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비율(5.8%)과 이미 취업한 자의 비율(5.5%)이 서로 비슷하다.

여성 청년층 실업자와 취업준비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은 150~200만원 미만이 39.5%로 가장 높고,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150만원이 29.6%로 가장 높으나 150~200만원 미만도 28.9%를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 청년층의 경우 취업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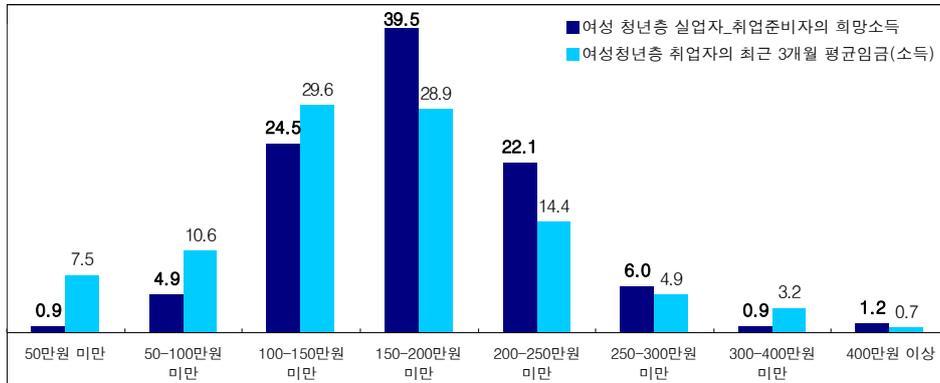
〈표 10〉 실업자-취업준비자의 희망산업과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비교

단위 : 명(%)

희망산업 유형	실업/취업준비자의 희망산업별 분포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농업·임업·어업	2,288 (1.3)	2,184 (1.5)	4,472 (1.4)	22,548 (1.3)	5,969 (0.3)	28,517 (0.8)
광업 및 제조업	29,961 (17.0)	7,416 (5.1)	37,377 (11.6)	431,620 (24.4)	240,577 (12.0)	672,197 (17.8)
건설업	8,540 (4.9)	3,143 (2.1)	11,683 (3.6)	76,377 (4.3)	25,372 (1.3)	101,749 (2.7)
도매 및 소매업	14,335 (8.2)	11,862 (8.1)	26,197 (8.1)	313,019 (17.7)	304,845 (15.2)	617,864 (16.4)
숙박 및 음식점업	9,664 (5.5)	7,345 (5.0)	17,009 (5.3)	187,095 (10.6)	198,775 (9.9)	385,870 (10.2)
금융 및 보험업	7,386 (4.2)	6,145 (4.2)	13,531 (4.2)	53,512 (3.0)	87,986 (4.4)	141,498 (3.7)
전기·가스업, 운수업, 방송·정보서비스업	28,365 (16.1)	8,544 (5.8)	36,909 (11.5)	167,205 (9.4)	110,039 (5.5)	277,244 (7.3)
교육, 행정·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26,230 (14.9)	50,414 (34.4)	76,644 (23.8)	176,613 (10.0)	660,310 (33.0)	836,923 (22.2)
부동산·임대업, 전문기술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975 (9.1)	11,384 (7.8)	27,359 (8.5)	197,576 (11.2)	207,632 (10.4)	405,208 (10.7)
환경, 오락·문화, 개인서비스업·기타산업	33,111 (18.8)	37,992 (25.9)	71,103 (22.1)	145,557 (8.2)	162,363 (8.1)	307,920 (8.2)
합 계	175,855 (100)	146,429 (100)	322,284 (100)	1,771,122 (100)	2,003,868 (100)	3,774,99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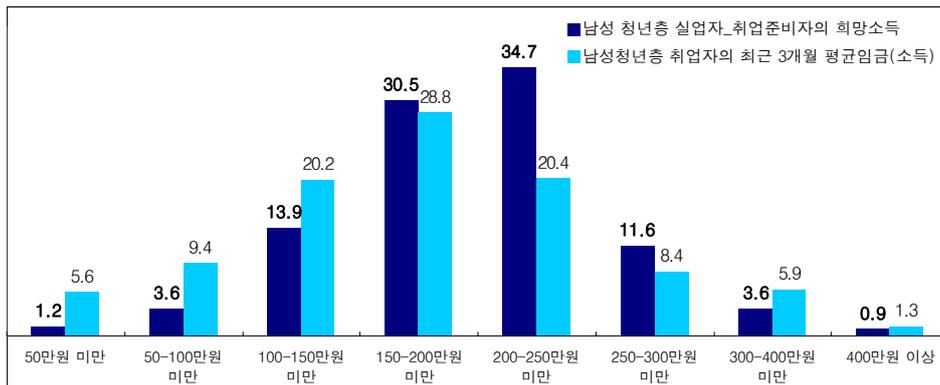
주 : 분석대상 범위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한정하였음
 자료 :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2년 3분기 자료.

남성 청년층 실업자와 취업준비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은 200~250만원이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0~200만원도 30.5%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200~250만원을 받는 자는 남성 청년층 취업자의 20.4%에 불과하다. 남성 미취업 청년층의 경우 임금 수준에서의 눈높이 격차가 희망임금 월 2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주 : 분석범위는 여성 청년층(15-29세)임.
 자료 :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2년 3분기.

[그림 11] 여성 청년층 실업자-취업준비자의 희망소득과 취업자 임금/소득 비교



주 : 분석범위는 남성 청년층(15-29세)임.
 자료 :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2년 3분기 자료.

[그림 12] 남성 청년층 실업자-취업준비자의 희망소득과 취업자 임금/소득 비교

4.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의 분석결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미취업자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준비만 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훨씬 크다. 남녀 청년층 모두 이리

한 경향을 보인다. 여성청년층의 경우 2012년에 실업자는 12만 4천여 명인데 취업준비 중인 비경제활동인구는 20만 3천명이다. 취업준비 중인 비경제활동인구는 니트족이나 켄거루족과 같이 취업의사가 약한 청년층에 비해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하기 유리한 집단이다. 여성 미취업자 중에서 지난 1주간 주요 활동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12만 8천명으로 여성 청년층 실업자 수(12만 4천명)보다 약간 많다⁵⁾.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매칭 정책 못지않게 취업준비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각적으로 취업하려는 의사가 없는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성 청년층은 남성 청년층에 비해 특히 취업준비 중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취업준비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남성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청년층 인구의 비활성화 문제, 즉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문제는 지난 10여년 간 주로 남성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에 50.5%에서 2012년에 41.9%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남성 청년층에 비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고, 2012년 현재 남성 청년층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다.

청년층 인구 비활성화의 원인은 초기교육 기간의 연장, 즉 학업을 종료하는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그러하다.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거나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층 인구는 남성 16만 3천여 명, 여성 11만 7천 여명이 증가했다. 미취업 청년층인구 전체

5) 남성의 경우에는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19만 9천명으로 실업자 수(15만 1천명)보다 4만 8천명 정도 더 많다.

에서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거나 입시준비 중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남성이 72.2%, 여성이 66.6%이다. 청년층 비활성화를 줄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기간이 무의미하게 연장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미취업 청년층을 1) 구직활동 중으로 일자리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취업 가능한 실업자, 2) 즉각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으나 취업준비 중인 자, 3)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고 취업준비도 하지 않는 자, 세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청년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1번과 2번 집단)의 인적자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고졸자 비중이 51.0%인데 비해 여성은 34.6%이므로, 여성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가 더 높다고 본다. 또한 대졸 이상 미취업자로 한정할 경우 남성(40.9%)에 비해 여성(50.2%)이 인문사회계열 비중이 높고, 공학 전공자 비중은 남성(38.7%)이 여성(10.3%)에 비해 높다. 또한 1)번과 2)번 집단이 희망하는 직업도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무직 희망자 비율이 13.8%p 더 높는데 비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자군을 희망하는 비율이 16.5%p 더 높다. 이러한 인적자본의 특성 차이는 성별, 전공계열, 희망하는 직업분야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정책대상집단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청년고용정책의 대상 범위를 29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30-34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는 20대와는 매우 다르다. 남성은 90%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데 비해, 여성은 50%대에 불과하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도 더 낮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참고로 15-29세 여성청년층 중에

서도 육아, 가사를 맡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33만 1천명 정도(6.3%)이다.

청년고용정책의 대상 범위를 34세까지 확대하면 남성보다 여성 미취업자가 정책대상에 더 많이 포함된다. 그러나 30-34세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정책은 20대 청년층의 정책수요와 매우 다른데, 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대상범위만 확대하는 것은 정책수혜의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 20대 남성 미취업자가 주요 수혜대상이었던 정책에 30-34세 여성 미취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표 11〉 현재 추진 중인 청년고용정책 구분

정책 유형	정 책 대 상		
	대학 재학생	졸업예정자	청년미취업자 (졸업자)
취업준비 (직업지도, 취업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관제도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중 취업지원 사업 -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취업아카데미 - 취업성공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교육(창업아카데미, YES 리더스특강, LINC사업 일부 등) - 창업공모전 		
직업능력 개발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기술사관육성 사업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실업자 훈련
고용확대 (직접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턴사업(중소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 해외취업(GE4U, 맞춤형, K-move 스쿨) - 해외인턴 - 청년창업 사업화지원 	

참고문헌

신선미 외(2013).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효과와 취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인수·남궁은상(2002). 청년층 실업현황과 정책과제. 예산기획처.

하현선(2013).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